해외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The Cooperative Storage Facilities for Academic Libraries in Other Countries

곽 동 철(Dong-Chul Kwack)**
심　　경(Kyung Shim)***
윤 정 옥(Cheong-Ok Yoon)****

〈 목　차 〉

Ⅰ.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대학도서관 공공보존서고의 개념과 필요성
1. 공동보존서고의 개념과 용어
2. 공동보존서고의 필요성
Ⅲ. 주요 국가의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치 및 운영
1. 미국의 공동보존서고
2. 호주 빅토리아주의 CARM Centre
3. 스코틀랜드의 CASS
Ⅳ. 맺음말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미국, 호주, 스코틀랜드의 주요한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7개관의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특성을 기술 및 분석하는 것이다. 각 공동보존서고의 물리적 시설, 운영주체, 소장자료의 성격과 규모, 자료의 소유권, 자료의 이용과 서비스, 자료관리와 접근 시스템 등의 고유한 특성을 서술하고, 시설구축 및 운영의 목표, 서고 환경 등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상이한 공동보존서고의 발전현황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하는 데 필요한 상황과 조건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주제어: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자원공유와 보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even major cooperative storage facilities for academic libraries in the U.S.A, Australia, and Scotland in order to provide a frame of reference for such a facility in Korea. Analyzed ar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se storage facilities in relation to their physical facilities, uses and services for collections, participating organizations, ownership of resources, and integrated library management and access systems. Some objectives of operations and physical environments are shared by these storage facilities, and have som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 storage facilities in Korea.

Key Words: Academic Libraries, Cooperative Storage Facilities, Resource Sharing and Preservation

* 이 논문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도서관정책연구 과제인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치 운영 및 국가대출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kwackdc@cju.ac.kr) (제1저자)
*** 아이리스닷넷(shim@irisnet.co.kr) (공동저자)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jade@cju.ac.kr) (공동저자)
• 접수일: 2007년 4월 6일　• 최초심사일: 2007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07년 6월 22일

www.kci.go.kr

Ⅰ.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우리나라 대학도서관계가 관심을 갖는 사안들 가운데 하나는 공동보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찍이 대학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공동보존서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1] 실제적인 공동보존서고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2]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2006년 여름 '국내 도서관의 자료보존 현황 및 공동보존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의 '열린 정책 세미나'를 통해 공공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 공간의 문제를 논하는 가운데, 대학도서관의 공동보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3] 개인 연구자로는 강미희[4]가 국내도서관의 자료보존 및 폐기실태를 조사하고 공동보존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가 있고, 강현민[5]이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운영방안을 제안한 바가 있다. 조옥수[6]는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학도서관의 자료규모에 비하여 부족한 도서관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문제이다. 한정된 공간을 갖는 도서관 내에서 소장자료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가 적절히 자료를 열람 및 활용하고 다양한 관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잠식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도서관 시설과 공간의 편의성과 안락성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또한 증대하면서, 자료 규모에 비례하여 서가공간을 확대시키고, 결과적으로 다른 용도의 공간을 전용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도서관의 신축이나 개축이 쉽게 추진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적 방안은 불용 혹은 저이용자료의 폐기, 이관 등으로 기존 시설내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개별 도서관이 아니라 공통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갖는 여러 도서관이 함께 이관된 자료의 공동보존과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비용효과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앞에서 언급한 연구들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에서 정보자원을 공동 보존해야 할 당위성 혹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가깝

1) 곽동철, 윤정옥, 김기태,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에 관한 연구(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5).
2) 곽동철, 심 경, 윤정옥, "대학도서관의 보존서고 설치 및 운영과 국가대출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신청서(2006. 5. 19) 및 2006 대학 e-Campus 대회 발표원고(부산: BEXCO, 2006. 6. 21-22).
3) 국립중앙도서관, "국내도서관 자료보존 현황 및 공동보존 구축방안," 2006 국립중앙도서관 '열린정책 세미나' 자료집: 5 (서울: 동도서관, 2006).
4) 강미희, 국내도서관의 자료보존 및 폐기실태와 공동보존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003).
5) 강현민,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6), pp.29-53.
6) 조옥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참조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005).

www.kci.go.kr

게는 십 여 년 전, 멀게는 이십여 년 전부터 구미지역의 주요한 대학도서관들이 논해왔고,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해결책이 시도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대학과 대학도서관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채 백년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제반 현황을 구미 지역의 전통과 발전규모 혹은 속도와 일반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대학도서관의 공간과 시설문제에 대한 논의는 적어도 십년 정도 늦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시도해 온 다른 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구축과 운영에서 집적된 경험이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의 몇 몇 연구들[7]에서도 미국의 PASCAL, ReCAP, FCLD 등 해외의 몇 개 공동보존서고의 특성에 대하여 간략히 열거한 바가 있으나, 기능, 소유권, 참가기관과 컬렉션 규모 등 몇 가지 항목을 열거하는 데 그쳤고, 각 시설의 구체적인 구축과 운영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설치 및 운영에 적합한 모형을 만드는 데 참조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해외의 주요한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사례를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준거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연구에서는 미국, 호주 및 스코틀랜드의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대표적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논문, 보고서, 백서, 정책제안서 등의 문헌을 조사하도록 한다. 또한 관련된 국가, 단체, 기관 등의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된 각종 통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동보존서고의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물리적 시설, 소장자료의 성격과 규모, 자료의 소유권, 자료의 이용과 서비스, 자료관리와 접근 시스템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Ⅱ. 대학도서관 공공보존서고의 개념과 필요성

1. 공동보존서고의 개념과 용어

공동보존서고라는 개념은 보존서고라는 일반적 시설 개념과 복수 도서관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7) 강현민, 전게논문; 남영준. 2006. "해외 주요국가 공동보존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국내도서관 자료보존 현황 및 공동보존 구축방안. 2006 국립중앙도서관 '열린 정책 세미나' 자료집(서울: 동 도서관 국제회의장, 2006. 9. 25), pp.5-27.

www.kci.go.kr

가짐으로써 추구하는 협력 기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보존서고는 장서의 소장과 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하는 도서관의 공간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이용률이 낮은 자료를 지리적으로 떨어진 별도의 건물인 서고에 이관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었다. 그러나 개별 도서관들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건축하여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재정, 인적 자원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리적으로 근접한 도서관들이 공동으로 이를 구축 및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적합함을 인식하면서, 여러 도서관의 공동의 이해와 목표가 반영된 공동보존서고라는 개념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동보존서고의 명칭과 정의에 대해서는 강현민[8]이 〈문헌정보학용어사전〉[9]에 나타난 유사한 용어 항목들을 찾아 자세하게 나열한 바가 있는데, 영어로는 'repository'를 비롯하여 'reservoir library', 'storage center', 'deposit library'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로는 보존서고, 공동보관소, 보존도서관 등이 있다. 강현민은 특정한 영문용어가 여러 개의 우리말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하나의 우리말 용어가 여러 개의 다른 영문용어로 표현되는 등 용어의 일관적이며 고유한 용법에 따른 개념의 구별이 쉽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 용어들은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도 다양하게 표현 및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deposit library와 depository library라는 용어만 해도,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이 두 용어를 '법적으로 납본을 저장하는 도서관'을 의미하는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10][11] 그러나 미국에서 발행된 'ALA 용어집'[12]에서는 전자를 'storage center'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용률이 낮은 자료의 공동보존서고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후자는 영국과 동일하게 '특정 자료를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접수하여 소장하도록 법적으로 지정된 도서관'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두 용어를 구분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영어권에서 발생한 용어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 표현의 구분 또한 모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문용어들을 포괄하여 "이용률이 낮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의 보관, 보존, 또는 소장을 위한 서고 또는 도서관"을 '보존서고'로 칭하며, 이 "보존서고가 여러 개의 대학도서관이 서로 합의한 기준과 목표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고 운영, 소유권, 서비스 등의 제반 영역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시설"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공동보존서고'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8) 강현민, 2006. 전게논문

9) 사공철 외 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10) Keenan, S. and Johnston, C., *Concise Diction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nd ed. (London: Bowker, 2000).

11) Prytherch, Ray, and Leonard Montague Harrod. *Harrod's Librarians Glossary of Terms Used in Librarianship, Documentation and the Book Crafts and Reference Books*. (Gower Pub. Co., 1990).

12) Young, H.(Ed.).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3).

www.kci.go.kr

2. 공동보존서고의 필요성

공동보존서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공간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재정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그 도서관 예산의 많은 비중을 급등하는 자료구입비가 점유하고 있다. 더욱이 날로 다양해지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료의 활용공간과 이용자 편의공간을 확대 및 개선해야 할 필요성 또한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투자가 요구되는 도서관의 증·개축 혹은 신축은 현실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보존서고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러 나라의 대학도서관들은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를 보존서고로 이동함으로써 계속해서 추가되는 새로운 자료가 적절하게 소장되고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 그리고 공유시설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지역적, 국가적 혹은 국제적 규모의 공동보존서고 구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13] Hayes는 공동보존서고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 인쇄매체의 자료는 대학도서관의 수용 능력 이상으로 계속 증대하고 있다.
- 전통적인 완전한 서비스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공간보다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왜냐 하면 실내장식은 물론 외형에 대한 장식이 별로 필요 없고, 더 적은 수의 직원, 더 낮은 부동산 가격 및 간접비용 등으로도 충분하고, 비싼 시설들은 공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료를 이용자 공간까지 확대하지 않고도, 새로운 교수, 학습 및 컴퓨터 환경에 따라 새로이 요구가 증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개가식 소장 장서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서가공간의 75%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비하여, 보존서고에서는 서가공간의 100%를 사용할 수 있다.
- 일정공간의 최대 사용이 가능하다.
- 저장된 자료는 이용빈도가 낮은 것들이다. 따라서 캠퍼스 내 대학도서관 공간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요구빈도와 이용빈도가 높은 자료들만을 소장하고 서비스할 수 있다.
- 환경이 통제된 자료는 이용자의 편의성은 낮으나 상대적적으로 특정 수준의 보존성을 가진다. 즉, 빈번히 이용되는 도서관 시설에 보관된 자료보다 자료의 수명이 7-10배 연장될 수 있다.
- 전통적 대학도서관 환경보다 훨씬 보안성이 높다.
- 대부분의 저장시설들은 계속해서 증축 혹은 개축되는 대학도서관보다 훨씬 계획이 잘 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에 더 적합하다.
- 다른 공유 서비스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냉각건조, 보존, 재해대비, 전문가의

13) 곽동철, 윤정옥, 김기태, 2005. 전게보고서.

www.kci.go.kr

목록생성 등을 포함하는 정리서비스, 디지털 스캐닝, 목차 스캐닝 등.

- 대학도서관 자료의 공동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 디지털화 하는데 비용을 들이는 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자료들은 차라리 그대로 서가에 소장해 두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14]

공동보존서고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미국 등지의 주요한 도서관들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 이전에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 하버드대학을 필두로 하여 여러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여러 대학들의 컨소시엄 혹은 협력 형태로 실제로 시설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도서관들은 지역단위로 인쇄자료 보존에 협력해야 함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15] 실제로 공동보존서고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매우 활발한 논의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다음에서 살펴보는 미국을 비롯한 몇 나라의 공동보존서고의 사례들은 그 설립 구상단계부터 실제로 시설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드러나는 수많은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들을 반영하고 있어, 국내 대학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면, 참조할 만한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Ⅲ. 주요 국가의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치 및 운영

1. 미국의 공동보존서고

미국 워싱턴 연구도서관 컨소시엄(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의 Lizanne Payne[16]에 따르면, 2004년 당시 미국 내에 오십여 개 이상의 보존시설이 있고, 계획 중이거나 건축 중인 시설들이 있다. 이들 기존 시설들 가운데 대부분은 개별 대학도서관들이 자체의 컬렉션을 위해 운영하고 있지만, 점차 많은 수의 공동시설들이 계획되고 건축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십오 년 사이에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for Research Libraries) 회원도서관들 가운데 20여 기관이 고밀도 보존시설(high-density storage facilities)을 설립하였고, 1990년대 말부터 도서관 건축가와 정책결정자들은 100만권 이상 소장 도서관들에는 반드시 이 같은 시설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14) Hayes, Helen., 1999b. "International Storage Facilities: A Discussion Paper. Appendix A." 〈http://www.anu.edu.au/caul/caul-doc/store-hayes1.doc〉 [cited 2005.10.12]

15) Bridegam, Willis E. "Print Preservation at the Local Level -- The Five College Experience,"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 Technical Services*, Vol.28(2004), pp.29-38.

16) Payne, Lizanne., "Depositories and Repositories Changing models of library storage in the United States,"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pository Libraries, KUPIO-2, Kupio, Finland, 13-15 5, 2004. 〈http://www.varastokirjasto.fi/kuopio2/lp.ppt Power Point Presentation〉 [cited 2006.06.06]

www.kci.go.kr

왔다.[17] 1999년 ARL이 122개 회원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58개의 응답도서관들 가운데 49개 도서관이 이차저장시설을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가운데 열두 개관은 고밀도 보존시설을 가졌고, 이 시설들은 대부분 최초의 대규모 고밀도 저장시설인 하바드대학의 보존서고(The Harvard Depository)가 가진 특성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ARL은 이에 따라 대략 팔십여 개의 ARL 도서관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차저장시설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18]

이 절에서는 매사추세츠주의 Five College Depository, 캘리포니아주의 Regional Library Facilities, 콜로라도주의 PASCAL, 뉴저지주의 ReCAP, 오하이오주의 Northwest Ohio Regional Book Depository 등의 보존서고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가. 매사추세츠주의 Five College Library Depository(FCLD)

2002년 11월 1일에 개관한 Five College Depository(혹은 Five College Library Depository. 이하 FCLD라 부름)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Connecticut River Vally 주변의 반경 15마일 이내에 소재한 네 개의 사립대학인 앰허스트(Amherst)대학, 햄프셔(Hamphshire)대학, 마운트홀리요크(Mount Holyoke)대학, 스미스(Smith)대학, 그리고 앰허스트 소재 매사추세츠주립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의 다섯 개 대학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이다. 이 보존서고는 이 대학들이 결성한 비영리 컨소시엄인 Five Colleges, Inc.이 운영하고 있다. 일찍이 1951년에 앰허스트, 마운트홀리요크 및 스미스대학은 Hampshire Inter-library Center(HILC)라는 이름으로 보존시설을 구축했던 적이 있다. 이 시설은 "모든 도서관이 입수하는 것은 실용적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목적으로는 쓸모가 있는, 희귀하고, 잘 사용되지 않는 정기간행물, 연간물 및 단행본을 위한 저장소"였다. 이 시설은 1970년대까지 매우 활발히 사용되었으나, 이 무렵 각 캠퍼스 도서관들이 개축 혹은 신축함으로써 공간문제가 해소되자, 자료를 모두 분산 이관하였다.

그러나 다시 1990년대 초반부터 공간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앰허스트대학이 2,9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서관의 증축 대신, 마침 매물로 나온 지역 내의 미국전략공군기지(Strategic Air Command Base)의 벙커시설을 구입하여(51만 달러), 저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머지 네 개의 대학도서관들 또한 동일한 문제에 부딪히게 됨에 따라, 앰허스트의 벙커 저장소 일부(8,000 ft ^{2})를 대여함으로써 Five College Depository를 구축하게 되었다.[19]

---

17) Seaman, Scott., "Collaborative Collection Management in a High-Density Storage Facilit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66, No.1(2005), pp.20-27.

18) ARL, *Library Storage Facilities, Management, and Services*, SPEC Kit 242. May 1999. 〈http://www.arl.org/spec/242fly.html〉 [cited 2006.6.6]

19) Bridegam, 2004. 전게논문.

www.kci.go.kr

물리적 시설: FCLD는 앰허스트대학의 지하 저장시설 내에 임대한 공간에 대략 50만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필요하면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은 매사추세츠주립대학에 할당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네 개 대학에 할당되었다. FCLD는 밀집서가를 이용하여, 주제가 아닌 자료의 크기로 조직하고, 이용자의 브라우징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료는 정리함에 비치되고, 그 안에 든 모든 권은 공통의 청구기호를 갖는다. FCLD에 이관되는 자료에는 기존의 바코드 라벨 아래 "Five College Depository"라는 스티커를 붙인다. 이 라벨들은 바코드 라벨과 거의 같은 크기이고, 색으로 구별하여, 네 개 대학 컬렉션은 파란색으로, 매사추세츠주립대학 컬렉션은 빨간색으로 코드화 한다.[20]

소장자료의 성격과 규모: 이 보존서고는 대학들이 단행본을 낱낱이 선정하여 이관하는 데 처리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 대부분 정기간행물에 치중하고 있으며, 책을 뭉치로(en block) 보내는 것은 예외로 하여 접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앰허스트대학이 과학기술도서관을 닫으면서 1974년 이전에 DDC로 분류된 과학기술분야 단행본들을 뭉치로 이관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FCLD로 어떤 자료를 이관할 것인가는 소유기관 각자의 결정에 따르지만, 한 기관 이상이 소장한 자료를 이관하는 것은 FCLD 프로젝트 디렉터의 지원을 받는 장서관리위원회(Collection Management Committee. CMC)의 조정을 받게 된다. 디렉터는 희망하는 이관기간 45일 전에 CMC가 제안한 주제범주 내에서 이관이 바람직한 자료의 목록을 배포한다.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CMC와 개별 도서관이 함께 조정하여, 가장 질이 좋은 가장 완전한 전질을 입수할 수 있게 하고, 가능하면 한 군데 이상의 소스로부터 자료를 충원하여 하나의 전질을 구성하기도 한다.[21]

자료의 소유권: FCLD는 각기 성격과 규모가 다른 다섯 개의 대학도서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공동소유권(joint ownership)에 대해 각각의 이해가 달리 작용할 가능성이 컸다. 이들 가운데 매사추세츠주립대학은 학생 수 25,000명 정도에 대학원 프로그램과 대규모 연구도서관을 갖고 있는 대학으로, 이 대학도서관은 미국연구도서관협회(ARL)에 속한다. ARL 내의 도서관 순위가 부분적으로는 소유한 장서의 권수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 대학도서관은 소유권의 문제에 훨씬 민감한 입장이었다. 그 밖의 네 개 대학도서관은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ACRL)이 2000년에 채택한 새로운 대학도서관 표준에 영향을 받는데, 이 표준은 질적, 양적 척도를 다 고려하지만, 비용, 공간, 소유장서의 규모 같은 항목보다 도서관의 자원과 프로그램의 접촉 결과로 이용자들이 변화하는 정도나 결과를 더욱 중시하므로 소유권의 문제에 다소 융통

20) Five College Library Depository, "Five College Library Depository Policies," 2003. 〈http://www.fivecolleges.edu/sites/depository/policies/〉 [cited 2006.12.14]
21) Five College Library Depository, 2003. 전게 사이트.

www.kci.go.kr

성을 가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FCLD는 하나는 매사추세츠주립대학을 위해, 다른 하나는 나머지 네 개의 대학을 위해 두 개의 별도의 컬렉션을 유지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고, 후자를 위해 유지하는 카피는 네 개 대학도서관의 공동소유로 인정하도록 동의하였다. 그리고 ACRL 측에서 이 저장시설에 소장되고 네 개의 대학이 공동으로 소유한 장서에 대해서는 각각의 대학도서관 통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인정함으로써, 하나의 카피로서 네 개의 도서관이 실질적으로나 통계상으로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22]

시설 및 자료의 이용과 서비스: FCLD는 컬렉션의 시설 내 이용에 대하여 가장 개방적인 정책을 갖는 보존서고에 속한다. 시설 내의 열람실은 일반대중에게까지 공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두 개의 기관, 즉 매사추세츠주립대학과 앰허스트대학이 연방 기탁도서관(federal depository libraries)이기 때문이다. 이 보존서고에는 정부문서들이 소장되어 있고, 따라서 대중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다.[23] 이 보존서고는 또한 시설 내에 대출처리 및 원문제공(document delivery) 담당 직원을 갖는다. 이 시설은 참여도서관의 교수와 학생의 대출 요구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외부의 요청 또한 충족시킨다. 대출요청을 기탁도서관으로 보내지 않고, 시설 내에서 처리함으로써, 기탁도서관들로 하여금 외부에 소재한 컬렉션을 이용할 때, 특히 노동집약적이 될 수 있는 잘 사용하지 않는 컬렉션 서비스의 부담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재정과 비용: FCLD는 목표와 비중이 다른 두 개의 컬렉션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각 도서관의 비용분할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즉, 매사추세츠주립대학이 비용의 4/11을 부담하고, 다른 대학들이 각각 2/11씩, 그리고 가장 규모가 작고, 저장시설에 보낼 자료가 적은 햄프셔대학이 1/11을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FCLD는 다섯 개 대학의 총학장들이 공동으로 궁극적인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으나, 이 대학들의 도서관장 위원회가 저장시설에 관한 정책결정을 내린다. 이 위원회는 앰허스트대학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전체를 관장하도록 위임하고, 앰허스트대학 도서관이 프로젝트 매니저와 두 명의 보조원을 포함하는 직원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24]

자료관리와 접근 시스템: FCLD의 모든 소장자료는 Five Colleges Libraries Catalog[25]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이 종합목록(Innovative Interfaces Catalog System)은 컨소시엄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공용 통합도서관시스템(Integrated Library System)으로서, 보존서고 소장정보를

22) Bridegam, 2004. 전게논문.
23) Reilly, Jr. Bernard E. 2003. Developing Print Repositories: Models for Shared Preservation and Access.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http://www.clir.org/PUBS/reports/pub117/contents.html〉
24) Bridegam, 2004. 전게논문
25) Five Colleges Libraries, "Five Colleges Libraries Catalog." 〈http://fcaw.library.umass.edu: 8991/〉

www.kci.go.kr

수록한다. 매사추세츠주립대학은 별도의 자체 컬렉션 OPAC도 유지하고 있고, 이 보존서고의 직원이 두 시스템을 다 갱신한다. 이 두 목록에는 소장위치가 "FCL Depository"로 표시되고, 자료의 청구기호로서 트레이번호가 표기된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개 대학들은 자체의 로컬 목록을 유지하는 대신 Five Colleges Libraries Catalog를 그대로 사용하며, 각 도서관의 소장위치를 제한하여 검색하도록 한다. 한편 FCLD는 자체의 OCLC 식별기호(OCLC identification)를 갖지 않고, 각 도서관의 분관으로서 간주된다. 따라서 상호대차를 이용하면, 신청한 각 회원도서관으로 신용점수가 누적된다.[26] 참여도서관의 공용 통합도서관시스템에서는 아래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통일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통합검색과 개별도서관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결과 중 공동보존시설에 소장된 자료는 시스템의 "자료신청" 기능을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에 따라 별도의 웹 신청양식이 존재하며 자료유형에 따라 신청된 자료는 공동보존시설 직원이 처리한다. 단행본의 경우에는 Five College Library Courier 서비스를 운영하여 매일 신청자의 소속도서관으로 배달되며, 저널 논문은 이미지파일, 복사 또는 팩스로 제공된다. PDF파일은 이메일로 신청자에게 직접 보내지만, 복사본은 소속도서관으로 발송하여 신청자가 찾아가거나 캠퍼스 메일로 보내지기도 하는데, 이는 개별 도서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방식은 단행본은 일반 상호대차의 절차, 저널 논문은 원문제공 서비스의 절차와 유사하다. 차이점은 서비스 범위가 이 협력체 내부에 제한된다는 것뿐이다.

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공동보존서고: Regional Library Facilities(RLF)

주로 주(州)나 지역 단위로 복수의 대학도서관들의 학술정보자원에 대한 공유저장과 보전을 위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이하 UC라고 부름) 도서관 시스템이 유지하고 있는 '지역도서관시설(Regional Library Facilities. 이하 RLF라고 부름)'이라고 할 수 있다. RLF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열 개의 UC 캠퍼스 도서관과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California State Library)의 자료를 위한 공유시설로서, 북부 캘리포니아지역의 리치몬드시(Richmond)에 소재하고 있는 NRLF(Nor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와 남부 캘리포니아지역의 UCLA 캠퍼스내에 소재한 SRLF(Sou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의 두 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NRLF는 UC의 버클리, 샌터크루즈, 샌프란시스코 및 데이비스 캠퍼스, 그리고 2004년부터 새로 생긴 머세드 캠퍼스 도서관까지 지원하고 있다. SRLF는 UC의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어바인, 샌타바바라 및 리버사이드 캠퍼스를 지원하고 있다. SRLF와 NRLF의 두 보존서고에 소장된 컬렉션은 별치되어 있지만, 모든 캠퍼스의 운영과 서비스에 완전히 통합되어 광범히 사용되고 있으며, UC 시스템 전체의 공유 정보자원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다. 다음은 직원의 규모 면에서나 처리하는 업무의 다양성 면에서 미국 내 보존시설들 가운데

26) Five College Library Depository, 2003. 전게 사이트

www.kci.go.kr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SRLF의 사례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 SRLF

SRLF는 로스앤젤레스시의 UCLA 캠퍼스에서 UC 도서관 자료, 아카이브, 고문서 컬렉션을 위한 보존시설로서 1987년 8월에 개관하였다. SRLF의 구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 발전계획(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ies: A Plan for Development. 1977)"의 10장(Chapter X)에서 제안된 것으로, 실제 건축 프로젝트를 위한 주의 재정지원은 1984년에 승인되었다.

물리적 시설: SRLF는 1987년에 1단계 건축이 완료되었고, 1995년에 2단계 건축 완료시, 서가 구성은 적어도 6백만 권에 해당하는 수용능력을 제공하도록 마련되었다. 건물은 서가 공간 뿐 아니라 직원 및 열람자 공간을 가지도록 설계되었고, 추가의 공간이 필요하게 될 때 새로운 서가를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SRLF는 자료의 수용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료를 크기와 입수번호순으로 도서관 서가에 배열하고, 기탁도서관 자료들은 혼합하여 배열한다.[27] 즉, 서가공간을 도서관 별로 할당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특수 컬렉션을 위해서는 보안이 보다 강한 구역이 배정된다.

소장자료의 성격과 규모: SRLF는 UC 도서관들을 위해 연구 가치를 지녔으나, 이용 빈도가 낮은 도서관 자료를 비용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저장, 보존 및 접근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남부, 즉, 티하채피(Tehachapi) 산맥 이남에 소재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다른 도서관들에게도 개방되어, 이들도 자료의 "기탁도서관(depositing libraries)"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단, 개인이나 에이전시, 도서관이 아닌 기관들에게는 기탁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기탁도서관들은 남부지역도서관위원회(Southern Regional Library Board)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8] 2005년 6월 30일 현재 통계에 따르면, SRLF에 전체 기탁된 자료(item) 수는 4,760,648에 이르고, 그 가운데 UC 도서관들의 '공유 인쇄자료 컬렉션(UCL Shared Print Collection)'이 35,758건을 차지한다. 지금까지 기탁된 전체 권수는 5,277,905권에 달한다. 2004년에서 2005년까지 한 해 동안 자료이용의 요청 건수는 거의 십만 여건(97,468건)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UC가 요청한 것(79,694건. 81%)이고, 보존서고시설에서 직접 이용하거나(9,063건. 10%), 필름아카이브에 대한 요청도 있다(4,940건. 5%). 이 기간 동안 모두 190,448건이 새로 입수되었는데, 전체 비율은 UCLA 소장 자료가 80%로서 가장 많고, UC 어바인,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샌타바바라 등 남부지역 UC 캠퍼스에서 보내온 자료들과 더불어, UC 전체의 공유 인쇄자원 컬렉션이 12%

27) UCLA. Nov. 1995. rev. "Sou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 Statement of Operating Principles: Outline." http://www.srlf.ucla.edu/Deposit/OpPrinciples/OperatingPrinciples.htm [cited 2006.9.13]
28) UCLA. Nov. 1995. rev. 전게 사이트

www.kci.go.kr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29] 이와 같은 구성비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대학들 가운데, UCLA가 가장 역사가 오래 되고, 도서관장서 규모 또한 방대하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들보다 기탁할 자료들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 Reilly, Jr.(2003)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SRLF는 단행본, 고문서·아카이브, 정기간행물, 마이크로폼, 신문, 기타 특수컬렉션, 사진 네거티브 및 정부문서까지 소장하여, 매우 다양한 자료 형태로 구성된 컬렉션을 갖고 있다.

시설 및 자료의 이용과 서비스: SRLF는 단순한 보존서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전문 시설의 역할을 한다. SRLF의 보존 이미징 서비스(Preservation Imaging Service)는 인쇄자료 및 비책자자료 원본의 아카이벌 디지털화와 리포맷팅(reformatting)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성능을 통합한 시설로 확대되었다. 이 서비스가 2004~05년에 수행한 주요한 프로젝트는 UCLA 디지털도서관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다양한 희귀본, 고문서, 지도 컬렉션을 디지털화 하고, 특수컬렉션들과 Los Angeles Times Photographic Archives(로스앤젤레스타임스 신문사진 아카이브)를 디지털화 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또한 2005년 1월에 UC/JSTOR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 UC가 구독하는 저널들로부터 JSTOR가 이미 디지털화한 1,400만 페이지 가량의 인쇄자료 보존서고(paper repository)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SRLF의 열람실을 재설계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도 기존의 열람공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2005년 1월에는 전체 프로젝트 예정규모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SRLF 소장자료의 인증 작업을 시작하고, UCSC(샌타클라라)가 최초로 보내온 기탁 정기간행물 3,850권을 인수하였으며, 2006년부터 매달 적어도 650,000 페이지 정도의 정기간행물 디지털화를 수행할 목표를 갖고 있다.[30] 다시 말하면, SRLF는 UC 시스템에 속한 열 개 대학도서관 가운데 여덟 곳이 구독하는 전자저널의 인쇄본에 대한 공동보존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UC 전체의 공유 인쇄자원의 절대규모와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보존서고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형적 예가 될 수 있다.

자료관리와 접근 시스템: SRLF와 NRLF의 소장자료의 서지레코드는 UC의 열 개 캠퍼스 도서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종합목록인 MELVYL에 포함되어 있다. SRLF의 컬렉션은 UCLA 도서관의 목록인 ORION을 비롯하여, 각 기탁 도서관의 목록에서도 해당 자료의 소장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열람이나 문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버클리캠퍼스는 자신들만의 웹기반 시스템인 Pathfinder나 이 시스템의 텔넷 버전인 GLADIS를 사용할 수 있다. SRLF는 정리와 열람업무를 위해 2004년에 인디버사(Endeavor Information Systems Inc.)가 개발한 Voyager 상용시스

29) UCLA, 2006, "Sou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 2004-2005 Report." http://www.srlf.ucla.edu [cited 2006. 9.13]
30) UCLA, 2006. 전게 사이트.

www.kci.go.kr

템을 도입하였고, Voyager의 '대출신청(Call Slip)' 기능을 통해 ORION 스크린에서 바로 "Select an Item" 항목을 갖고, SRLF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RLF에 대한 OCLC ILL(상호대차)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OCLC의 Prism Request 모듈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OCLC FirstSearch를 사용한다.

MELVYL시스템은 공동보존서고로 이관된 자료는 현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의 소장정보를 단순히 공동보존서고로 변경하여 제공하여 있으며, 검색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동 시스템의 자료신청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된 자료는 신청자의 소속도서관으로 이틀 이내에 배송된다.

다. 콜로라도주의 PASCAL

콜로라도주의 PASCAL(Preservation and Access Service Center for Colorado Academic Libraries)은 초기에 등장한 협력형(Collaborative) 고밀도 보존서고의 하나이다. PASCAL은 주립기관인 보울더소재 콜로라도주립대학(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덴버소재 콜로라도주립대학(University of Colorado at Denver) 및 콜로라도보건학센터(Colorado Health Science Center)와 사립대학인 펜로즈소재 덴버대학(University of Denver at Penrose) 및 덴버대학법학도서관(University of Denver Law Library)이 공유하는 시설이라는 면에서 특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31]

PASCAL은 그 사명이 "이들 회원 도서관들의 자료를 위하여 중앙집중화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고밀도 영구 저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천명하였다.[32] 여러 대학도서관이 소장한 다양한 컬렉션을 통합하고, 컨텐츠에 대한 전자적 접근을 제공하며, 참여 도서관에 대한 신속한 자료의 제공 및 보다 넓은 콜로라도 도서관계 전체에 대한 자료의 제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됨으로써, 협력형 장서관리와 접근제공을 통해 대학 및 공공도서관이 사용할 수 있는 주 전체의 공유자원(a statewide resource) 역할을 도모하고 있다.

물리적 시설: PASCAL은 덴버소재 콜로라도주립대학 및 콜로라도보건학센터(UH/UCDHSC)의 Fitzsimons 캠퍼스에 자리잡고 있으며, UH/UCDHSC의 데니슨기념도서관(Denison Memorial Library)이 관리를 맡고 있다. 현재 데니슨도서관의 직원이 PASCAL의 시설관리 책임자(Manager)이며, 자료처리 담당자(Materials Handler) 직함을 가진 두 사람의 직원이 더 있다.[33] PASCAL은 하버드대학 보존서고에서 선도된 디자인 방식에 근거하여, 10,000 평방피트의 공간에 160만권의 자료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설은 향후 네 개의 동일한 크기의 모듈을 추가할 수 있도

31) Seaman. 2005. 전게논문.
32) PASCAL, "PASCAL: Preservation and Access Service Center for Colorado Academic Libraries." 〈http://pascal.uchsc.edu/〉 [cited 2006.12.13]
33) PASCAL, 전게 사이트.

www.kci.go.kr

록 되어 있다. 건물은 연중 평균 화씨 55도, 35% 상대 습도를 갖도록 조정되어 있다. 소장된 모든 자료는 바코드로 식별된 9미터 정도 높이의 선반에 판지정리함에 크기별로 분류되고 저장된다.

소장자료의 성격과 규모: PASCAL의 소장대상 자료는 가치가 있으나 수요가 낮은 오래된 연구자료이다. PASCAL의 참여도서관들은 초기 기획단계에서 PASCAL이 "기록물도서관(a library of record)", 즉, 모든 참여도서관이 소장한 어떤 단행본이든, 정기간행물의 권호이든 "마지막 카피(the last copy)"를 소장하는 시설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로 인하여 각 회원도서관이 모든 학술자료를 자관에서 유지하는 부담을 덜게 되고, 특정한 자료가 일단 PASCAL에 소장되면, 나머지 회원도서관들은 자기들이 가진 동일한 자료의 카피를 자관에서도 제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엄격한 지침을 정하지는 않았고, 다만 PASCAL이 "자관에서 정의한, 저이용 자료의 영구적 저장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34] 현재 소장자료의 유형은 콜로라도대학과 덴버대학 도서관에서 이관한 저이용자료, 필름, 마이크로피시, 제본된 정기간행물, 단행본, 대형 및 단명자료(oversized and fragile materials)를 포함하고 있는데, 향후 다른 대학도서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운영협약을 갖고 있다.

자료의 소유권: PASCAL의 구축과 운영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논의된 문제는 도서관 자료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공동보존서고에서 보유 자료를 공유하겠다는 정책(joint retention policy)은 자료의 중복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의 결정에 의하여, 어떤 카피를 저장하도록 보유할 지 결정하고, 모든 참여도서관이 그 카피의 영구적 보유에 의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의 사명이 서로 다른 네 개의 도서관이 장서의 중복은 피할 수 없었다. 원칙적으로 PASCAL의 정책은 자료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관된 모든 자료는 컨소시엄 회원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이용자들에게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 카피만을 유지하면서 파트너 도서관들이 자관의 중복되는 카피를 제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도서관들은 매우 우려하였다. 예를 들어, 이들이 염려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였다: "불필요한 중복"의 범위를 정의하기 어렵다. 한 기관에서는 중복자료일 뿐이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중요한 카피일 수도 있다. 그리고, PASCAL에 단일 카피만 제출하는 것으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모든 PASCAL 소장자료를 회원 및 비회원 기관들에 대출하도록 할 경우, "대체 불가능한 최후의 카피(irreplaceable last copies)"를 대출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PASCAL은 단행본에 대해서는 "단일 카피"는 "각 파트너 도서관마다 한 카피"로 정의하고, 동일한 단행본의 네 카피까지 PASCAL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속간행물은 단 하나의 카피만 PASCAL에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도서관들은 콜로

34) Seaman, 2005, 전게논문.

www.kci.go.kr

라도 연구도서관 협의기구인 Colorado Alliance of Research Libraries의 Prospector라는 종합목록의 레코드에서 OCLC 번호, 표제 및 구체적 소장정보를 확인하여 중복을 확인하고, 여러 도서관들이 소장한 권호들을 가지고 결호를 채우면서 하나의 완전한 전질이 구성될 수 있도록 받아들인다. 각 도서관은 자기가 PASCAL에 보낸 권호 각각의 소유권을 유지한다. 단, 단행본과는 달리 연속간행물은 일단 PASCAL에 보내지면, 원래의 소유도서관으로 영구히 반환되지 않고, 이 보존서고에 소장되게 된다. 이 권호의 소유권과는 상관없이, 어떤 파트너 기관이든 장기 대출을 요구할 수는 있다.[35]

시설 및 자료의 이용과 서비스[36]: 유효한 콜로라도대학 또는 덴버대학 도서관 카드를 가진 사람은 PASCAL에서 직접 책을 대출하거나,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PASCAL 이용자는 24시간 전에 약속을 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책을 서고에서 꺼내오고 상온에 적응시킬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해야 한다. PASCAL에 소장된 단행본은 Prospector를 통해 단행본 대출 규칙에 따라 대출될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대 55일까지인데, 21일의 대출기간 및 한 차례의 연장을 포함하고, 나머지 14일은 자료의 발송, 이용자의 도서관에 의한 공지, 및 대출도서관으로의 반납을 위해 허용하는 시간이다. 모든 다른 도서관 이용자들은 자기 소속도서관의 상호대차 절차를 통하여 자료을 요청해야 하고, 대출은 자관의 상호대차 실행방식에 따른다. 실제 대출기간은 21일을 넘지 않고,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연속간행물도 역시 Prospector를 통해 연속간행물 대출 규칙에 따른 대출이 가능하다. 단, 총대출 기간이 17일로 실제 이용자 대출기간은 7일이며,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발송, 공지 및 반납을 위한 기간이다. 비인쇄 매체는 Prospector를 통해 매체 대출 규칙에 따른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기간과 조건은 연속간행물과 같다. 마이크로폼은 PASCAL에 저장될 수 있고, 시설 내에서만 볼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자료관리와 접근 시스템: PASCAL은 Prospector라는 종합목록을 통해 소장 자료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Prospector는 1998년 콜로라도주와 인근 와이오밍주의 주요한 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목록, 그리고 3개의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을 포함한 23개 도서관 목록을 통합한 종합목록으로, PASCAL 참여도서관 네 개의 목록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각 도서관은 PASCAL로 자료를 이관한 후에 자관의 로컬 목록 시스템과 Prospector 시스템에서 서지레코드의 소장위치가 갱신될 수 있게 하여, 이용자가 소속한 대학도서관의 로컬 목록이나 Prospector 목록, 두 군데 모두에서 소장내용을 확인하고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Prospector 목록에 PASCAL 소장 자료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대학 외부 이용자들이 더 많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35) Seaman, 2005, 전게논문.
36) PASCAL, "PASCAL Loan Rules: Overview." 〈http://pascal.uchsc.edu/loanrule1.htm〉

www.kci.go.kr

되고 있다. 2003년에 모든 PASCAL 대출의 22% 가량이 PASCAL 비회원의 요청이었고, 이들의 이용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한다.[37] 모든 Prospector 이용자들은 PASCAL로부터 자료를 요청하여, 자기들의 소속도서관으로 배달될 수 있게 하고, PASCAL 직원은 신청된 자료를 48시간 이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PASCAL 소장 자료는 보울더소재 콜로라도대학의 Chinook 온라인목록에는 "PASCAL OFFSITE"로 표시되어 있고, 덴버대학의 Peak 목록에는 "Storage", 법학도서관 목록에는"PASCAL OFF-SITE"로 각각 표시되어 있다. UCD/HSC의 Impulse 목록과 덴버소재 콜로라도대학의 Skyline 목록에는 "PASCAL"로 표시되어 있다. 회원도서관의 이용자들은 각각 자관의 목록에서 직접 PASCAL 소장 자료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각 목록은 자료 신청에 약간씩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모두 동일하게 화면의 상단부에서 링크를 발견할 수 있다.[38]

PASCAL은 소장자료 검색을 위한 공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개별도서관의 장서 중 PASCAL로 이관된 자료는 개별도서관 목록에 소장처를 반영하고 자관 자료에 대한 검색 시에는 소장위치를 보여주도록 하고 있다. 참여도서관은 자관시스템을 검색하고 해당 자료가 PASCAL 보존서고에 소장된 경우에는 개별도서관시스템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된 자료는 48 시간 이내에 신청자의 소속도서관으로 배송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소장 자료의 검색방식은 PASCAL이 공동보존서고에 소장된 자료에 대한 폭넓은 이용을 장려하기 보다는 철저하게 각 도서관에 부족한 공간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콜로라도주 전역에서 사용하는 Prospector 목록에 PASCAL 소장자료의 서지사항이 반영되기 때문에 Prospector 참여도서관은 누구라도 자료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라. 뉴저지주의 ReCAP

뉴저지주의 플레인스보로(Plainsboro)에 소재한 고밀도 공동보존서고인 연구도서관 컬렉션 및 보존 컨소시엄(Research Library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Consortium. 이하 ReCAP이라 부름)은 프린스턴 대학의 포리스털 캠퍼스(Forrestal Campus)에 자리잡고 있다. ReCAP은 컬럼비아 대학, 뉴욕공공도서관 및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세 개의 대규모 도서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시설로서, 고밀도 서가배치 및 통제된 보존환경, 이용자를 위한 손쉽고 확실한 인벤토리와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구축되었다.[39]

ReCAP은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공유하는 시설이라는 면에서, 또한 사립기관인 두 대학과 공공기관인 뉴욕공공도서관이 공유하는 시설이라는 면에서 매우 독보적인 특성을 갖는다고도

37) Seaman, 2005, 전게논문.
38) PASCAL, "Requesting a Book." 〈http://pascal.uchsc.edu/request.htm〉 [cited 2006.10.31]
39) Princeton University, 2002, "ReCAP: The Research Library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Consortium." 〈http://recap1.princeton.edu/about/general.html〉 [cited 2006.10.31]

www.kci.go.kr

할 수 있다. Reilly, Jr.는 ReCAP은 북동부 지역의 주요한 연구도서관들 가운데 비교적 "느슨하게 관련된 집단(a loosely related group)"[40]이 컬렉션 소장공간에 대한 공통적인 위기감을 인식하고 구축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 같은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1996년에 예일대학과 컬럼비아대학의 도서관장들이 공간문제에 대한 협력적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도서관장들을 모은 자리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논의되었으나, 결국 예일대학은 자체 보존시설을 구축하기로 하였고, 세 도서관만 참여하게 되었다.

물리적 시설: ReCAP의 계획은 1999년 2월에 시작되었고, 세 개의 창고모듈과 필름자료용 냉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의 저장용량은 700만 권이지만, 3,750만 권까지 수용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 ReCAP의 초기 단계는 자료 저장용 세 개의 별도 모듈, 작업실 영역 및 사무실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건물 면적은 84,296 평방피트에 이른다. 고밀도 선반모듈은 대략 길이는 6.3미터(210 피트), 너비는 2.1미터(70 피트), 높이는 11.4미터(38 피트)의 크기이다. 네 번째 모듈은 2005년에 완성되었으며, 필요하면 서가 모듈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설은 궁극적으로 218,820 평방피트의 저장 공간을 갖도록 확장될 수 있다.

ReCAP의 환경은 인쇄자료 중심이며, 민감한 매체형태로 된 저이용 자료들의 서가배치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고, 최소한의 평면영역(floor area)에 최대한의 자료를 저장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개별 자료들은 크기별로 분류되어, 상단부가 개방된 상자에 보관된다. ReCAP에서는 각 도서관들이 이관하는 자료가 이미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서가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도착해야 한다.[41] ReCAP에 도착하는 모든 자료는 깨끗하며, 양호한 상태이거나 적합한 보존용기에 들어있어야 한다.

ReCAP에 소장된 자료에 대한 접근은 오직 바코드 식별로만 이루어지므로,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식별하기 위한 적절한 레코드는 소유권을 가진 도서관이 생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자료는 너비와 높이를 모두 고려한 크기별로 분류되고,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성제거 판지정리함에 저장된다. 상자는 최대한 저장밀도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크기의 선반에 배치되는데, 모두 16종류의 규격이 다른 상자들이 사용된다. 자료들은 청구기호순이 아니라, 크기에 따라 배가된다. 이는 단행본 컬렉션에서도, 각 책의 주제나 저자가 아닌 물리적 크기에 따라 배가됨을 의미한다.

소장자료의 성격과 규모: ReCAP의 2006년 9월 현재 입수 자료(item) 총수는 5,535,515건에 이르는데, 이는 Columbia 대학의 2,386,216 건, Columbia 대학 법률도서관의 134,675건, 뉴욕공공도서관의 2,320,950건 및 프린스턴 대학의 749,383 건으로 구성되어 있다.[42] Reilly, Jr.(2003)가

40) Reilly, Jr. 2003. 전게서. Ch.2
41) Reilly, Jr. 2003. 전게서. Ch.2

www.kci.go.kr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장자료는 인쇄자료 중심이기는 하지만, 단행본, 고문서/아카이브, 정기간행물, 마이크로폼, 신문, 기타 특수콜렉션, 실물자료(Realia), 필름네거티브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매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ReCAP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의 NRLF와 SRLF, 워싱턴주의 WRLC와 더불어 규모가 크고, 소장매체도 다양한 대표적 보존서고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료의 소유권: ReCAP은 세 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의 공간을 공유할 뿐, 공동소유권 혹은 공동장서개발과 같은 자원공유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각기 이관한 자료의 소유권을 갖는다. 따라서 현재 ReCAP은 전적으로 위탁자료의 창고 혹은 수장고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ReCAP을 JSTOR의 전자 아카이브에 디지털로 구축된 저널들의 실물 컬렉션을 위한 보존서고로 사용하는 것의 타당성이 연구된 적이 있으나,[43]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자료관리와 접근 시스템: ReCAP 소장 컬렉션을 위해서 공동보존서고 목록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각 도서관이 유지하는 별도의 로컬 목록에 자료의 소재가 ReCAP임을 보여줄 뿐이다. ReCAP에 소장된 자료들은 각 도서관의 로컬 목록에서 식별되고, 요청양식에 대한 직접적 웹 링크를 갖는다. 컨소시엄 회원들에게는 자료 요청 후 다음 날 배달되도록 한다. 그러나 ReCAP 컬렉션의 관리를 위해 컨소시엄은 공동 인벤토리 및 대출제어 시스템으로서 Library ARchival System(LAS)을 사용한다. 인벤토리 제어 시스템은 자료의 위치를 추적하며, 요청된 자료의 추출목록(picking list)을 생산한다.

마. 오하이오주의 Northwest Ohio Regional Book Depository(NORBD)

오하이오주 페리스버그(Perrysburg)에 소재한 이 보존서고는 오하이오의과대학(Medical University of Ohio), 톨리도대학(University of Toledo) 및 보울링그린주립대학(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도서관 콜렉션에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고, 중요하지만 잘 이용되지 않는 자료를 위한 원격저장시설로서 특별히 설계되었다. 오하이오주의 Ohio Board of Regents의 재정지원을 받는 다섯 개의 보존서고들 가운데 하나로, 경제적인 고밀도 서가시스템으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통제된 보존환경을 갖추고 있다.

물리적 시설: 이 보존서고는 강철골조와 콘크리트 이중벽, 평면바닥으로 된 창고형(a warehouse-

42) Princeton University Library, 2006, "ReCAP. Statistics." 〈http://recap1.princeton.edu/about/stats.html〉 [cited 2006.10.20]

43) Neal, James G., "The ReCAP Artifactual Repository Planning Project,"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 Technical Services*Vol.28(2004), pp.25-28.

www.kci.go.kr

style) 건물로 총면적은 14,800평방피트에 이르며, 그 가운데 10,000 평방피트가 고밀도 서가공간으로 할당되어 있다. 나머지 공간은 사무실, 자료정리, 보존실험실, 연구공간 및 기계, 전기, 텔레커뮤니케이션실로 배정되어 있다. 보존서고의 첫 번째 모듈은 180만권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고, 네 개의 추가모듈을 수용할 수 있다. 자료는 개별 목록된 자료용 트레이와 자료 컬렉션용 상자에 저장된다. 보존서고는 9미터 높이의 서가를 열 줄 배치하고, 각 줄은 33개의 구획을 갖고 있으며, 전체 서가길이는 24.09 마일을 넘는다. 요청된 자료는 엘리노어(Eleanor)라는 애칭을 갖는 유인 포크리프트(Raymond Model 162is-OPC3011)를 사용하여 꺼낸다. 한편 서가와 주요 장비를 포함한 전체 건물의 건축비용은 310만 달러에 달하였고, 도서관 저장공간, 서가 및 주요장비를 고려한 소장자료 권당 비용은 1.72 달러 이하이다. 이 비용은 두 번째 모듈이 건축되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왜냐하면 초기에 설치된 모든 주요한 시스템이 적어도 두 개의 모듈을 수용하도록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44]

소장자료의 성격: 이 보존서고의 명칭에 "Book"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만으로 소장자료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보울링그린주립대학의 보존서고 이관자료의 선정기준[45]을 보면, 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음악녹음자료, 아카이브, 마이크로피시, 마이크로카드, 마이크로필름, 신문, 정부문서 및 멀티미디어 등 매우 다양한 형태가 이 보존서고에 소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학의 이관자료 선정기준은 대학의 현재 커리큘럼과 연구요구에 대한 "이용(use)"와 "가치(value)"로서, 학문분야마다 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으나, 대체로 거의 혹은 전혀 이용되지 않는 자료, 혹은 예를 들어 전자저널의 인쇄본과 같이 전자 또는 다른 포맷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이관하도록 한다. 이용도는 대학도서관의 통합도서관 시스템에서 유지되는 대출 및 내부이용통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한편 톨리도대학은 이관되는 자료는 대개 복본이 있는 책, 오래된(특히 취약한) 책, 또는 석박사학위논문과 같은 아카이벌 카피, 정기간행물의 오래된 과월호라고 하였다.[46]

자료의 소유권: 이 보존서고를 이용하는 각 도서관이 다른 성격의 소장자료를 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현재는 세 개 도서관 컬렉션의 공동장서개발이나 보존서고 소장자료의 공동소유권과 같은 자원공유의 개념을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보존서고는 회원도서관의 인쇄본 정기간행물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최근 시작하였고, 소장된 자료를 공동으로 소유하

44)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Library. 2006a. "Northwest Ohio Regional Book Depository. Information." 〈http://www.bgsu.edu/colleges/library/remote/info.html〉 [cited 2006.12.10]

45)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Library. 2006b. "Guidelines for Selection of University Libaries' Materials for Transfer to the Northwest Ohio Regional Book Depository,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http://www.bgsu.edu/colleges/library/DepoCriteria.pdf〉 [cited 2006.12.10]

46) University of Toledo. Library. "Northwest Ohio Regional Book Depository." 〈http://www.cl.utoledo.edu/coll/nworbd.html〉 [cited 2006.12.10]

www.kci.go.kr

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하였다.[47] 따라서 향후에 자료의 공동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 및 자료의 이용과 서비스: 이 보존서고의 소장자료는 OhioLINK 및 각 대학의 온라인목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이용자는 서가에 직접 접근할 수 없지만, 시설 내에서 자료를 사용하고 싶은 이용자를 위해 OhioLINK와 인터넷에 대한 컴퓨터 접근이 가능하고 테이블이 비치된 열람실이 있다. OhioLINK의 자료배달서비스(delivery service)를 이용하여, 매일 자료의 픽업과 반환을 수행한다. 정기간행물의 논문은 전자파일(Adobe PDF), 인쇄본 혹은 팩스로 제공한다.

자료관리와 접근 시스템: 톨리도대학의 온라인목록인 UTMOST에 보존서고 소장자료는 서지레코드 상에 소장위치가 'NW Ohio Book Depository'로 표시되어 있고, 검색 시 'NW Ohio Depository'로 제한하여 찾을 수 있다. 한편 오하이오주 대학도서관들의 종합목록인 OhioLINK에서는 각 도서관으로 제한할 수는 있으나, NW Ohio Book Depository로 제한하여 검색할 수는 없다.[48]

2. 호주 빅토리아주의 CARM Centre

호주의 빅토리아주 대학도서관 컨소시엄인 Cooperative Action by Victorian Academic Libraries (이하 CAVAL이라 부름)의 보존서고는 CAVAL Archival and Research Materials(CARM) Centre(이하 'CARM 센터'라고 부름)라고 불린다. CARM 센터는 협력형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공동보존서고들 가운데 가장 완전하게 실현된 모델이라고 평가된다.[49] CARM Centre는 처음 빅토리아주의 대학들과 빅토리아 주립도서관(State Library of Victoria)의 아카이벌 및 연구자료를 보존하는 시설로서 구축되었다. 이 서고의 구축은 빅토리아 주립도서관 및 빅토리아주의 대학도서관들 가운데 여러 곳이 공간의 부족을 절감하였고, 또한 호주정부가 대학들이 도서관 컬렉션을 위한 공간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의 경제성 및 정당성에 대하여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던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빅토리아주립도서관은 2005년 CAVAL의 회원에서 탈퇴하고, University of Ballarat에 별도의 보존서고를 건립하여 자료를 이관하였다.[50]

CAMR 센터를 운영하는 CAVAL은 호주 빅토리아 지역의 대학학장(Vice-Chancellor)들이

47) Kemp, Rebecca, 2006, "List of Cooperative Print Endeavors, with Brief Summaries." 〈http://library.uncw.edu/web/faculty/kempr/JSTOR-cooperative-print-endeavors.doc〉 [cited 2006.12.10]
48) OhioLINK. Catalog. 〈http://olc1.ohiolink.edu/search/X〉
49) Reilly, Jr. 2003. 전게서. Ch.6
50) CAVAL. 2006b. CAVAL Annual Report 2005. Bundoora, Victoria, Australia: CAVAL. Ltd. 〈http://www.caval.edu.au/about/2005AnnualReport.pdf〉 [cited 2006.12.11]

www.kci.go.kr

공동으로 소유한 협력기구로서 회원으로는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Deakin University, LaTrobe University, Monash University, RMIT, Swinburne University, University of Ballarat, University of Melbourn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및 Victoria University가 속해 있다. 이들 가운데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는 빅토리아주 외부의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2005년에 회원으로 들어왔고, 또한 새롭게 준회원범주를 만들어 빅토리아주에 소재한 21개의 TAFE (Traineeship/Apprenticeship. 직업훈련학교) 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이 합류하였다.[51]

물리적 시설: CARM 센터는 1996년 6월에 완공되었고, 1997년 2월에 개관되었다. 센터는 라트로브대학 연구개발단지(LaTrobe University Research and Development Park)에 있는 분두라(Bundoora)에 소재하고 있다. 라트로브대학은 CARM 센터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시설을 완공하는데 재정적으로 기여한 기관이다. 이 센터는 캠퍼스 내에 20년간 부지를 임대하고, 다시 20년간 임대를 갱신하거나, 두 차례 갱신한 후 이 대학으로 센터를 귀속시키는 옵션을 갖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52] 센터는 삼단계 건축계획을 수립하였다. 1단계는 CAVAL 사무실, 작업실, 및 교육, 보존, 세미나 시설을 마련하고, 아카이브와 연구자료 100만 권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추가적 단계의 건축이 완료되면, CARM 센터는 200만 권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CARM 센터의 건축비용은 참여하는 도서관 및 조직들이 분담하였고, 이들은 재정기여도에 따라 보존서고 공간을 할당받았다. 재정을 지원한 기관들은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자기들에게 할당된 서가분량만큼, 컨소시엄 컬렉션 혹은 비컨소시엄(nonconsortium) 컬렉션으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7월 현재, 모두 893,760권의 자료를 수용할 수 있는 15,246.2 미터의 서가가 대학, CAVAL, VICLINK 등에 할당되었고, 모든 재정지원 도서관들이 기여한 금액은 $3,778,564(호주달러)에 달했다.[53] 비컨소시엄 컬렉션은 만약 컨소시엄 컬렉션이 그 공간을 요구하게 되면, 비워져야 한다. 서가배열된 자료들에 배당된 공간을 초과하여 기탁된 자료들은 CAVAL 위원회가 부과한 율에 따라 권당 요금이 부과된다. CAVAL 회원이면서 건축에 기부하지 않은 도서관은 공간이나 서가를 할당받지 못하지만, CAVAL 위원회가 정한 권당 요금에 따라 컨소시엄 컬렉션에 기탁할 수 있다. 재정을 지원하지 않은 기탁자 및 CAVAL 회원이 아닌 기관들은 소장자료의 대출 시에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

51) CAVAL. 2006b. 상게 사이트

52) Choate, Ray, and Hayes, Helen. "An Australian Storage Facility." 〈http://www.anu.edu.au/caul/ caul-doc/store-choate.doc〉 [cited 2006.11.25]

53) CARM Centre. 2006c. "Collection and Services Policy Manual." "5. Charges." 〈http://caval.edu.acu/carm/pst/cspm/Collection and Services Policy Manual.pdf〉 [cited 2006.11.20]

www.kci.go.kr

소장자료의 성격과 규모: CARM 센터는 "가치가 있으나 잘 이용되지 않는 아카이벌 및 연구자료의 마지막 카피"를 소장함으로써, 양호한 상태에 있는 "고등교육수준 자료[54]" 의 카피들이 이후에 연구를 위해서 언제든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 센터의 컨소시엄 컬렉션은 "마지막 카피 보존시설(Last Copy Facility)"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최후의 카피"란 센터가 소장한 "단 하나의 양호한 품질의 자료 카피(단행본의 판)(a single good quality item copy(edition for monographs))"를 의미한다. 센터에 입수된 어떤 자료든지 첫 번째 카피가 "마지막 카피(the last copy)"로 지정된다. 이렇게 지정된 자료는 나중에 보존서고가 정한 물리적 기준에 따라 더 나은 상태라고 평가되는 동일한 판차의 카피가 입수되면, 그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55] 따라서 CARM 센터는 복본이 없고, 자료를 폐기하지 않으며, 최상의 환경조건에서 250년 이상 자료의 보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56]

CARM 센터는 이처럼 단일 카피를 보존함으로써 회원도서관의 자체 컬렉션에서 중복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용하는 자료에 대한 몇 가지 물리적 상태에 대한 기준을 제외하고는,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자료의 포맷과 사이즈에 대해서도 센터가 해당 자료를 적절하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의해서만 제한하는데, 비책자자료는 현재 시설의 보존 및 저장능력에 따라 받아들이고, 인쇄자료에 할당되어야 할 공간을 차지할 가치를 갖는가에 대하여 기증기관이 평가하여 이관하도록 한다. 완전히 낱장인 자료, 곰팡이나 기타 요인으로 오염된 자료 등은 제외하고, 인쇄자료는 완전성, 표지 등이 "양호한 상태"라고 물리적 상태의 기준을 통과하도록 한다.[57]

CARM 센터는 각 회원들이 소유한 이용률이 낮은 컬렉션 몇 가지를 모두 이관받아 소장하고 있다. 이들은 두 가지 주요한 호주의 유산 컬렉션인 빅토리아 주립도서관 고문서 컬렉션과 VICLINK 소설 컬렉션을 포함하는데, 그 규모는 50,000권에 이른다. 센터는 또한 멜버른대학의 1974년 이전 석사학위논문 컬렉션, 외국 정부보고서, 정기간행물 및 박사학위논문 등도 소장하고 있다. 2005현 현재 소장규모는 전체 62만 권에 이르는데, 단행본이 178,782종, 연속간행물이 11,515종이 포함되어 있고, 단행본이 전체 소장자료의 30%를 차지한다. 2005년 빅토리아주립도서관이 자료를 자체의 보존서고로 이동하였지만, 소장자료는 2005년 한해 동안 모두 59,250권이 증가하였다. CARM

54) "tertiary level materials"의 의미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수준의 자료라고 해석하였음.

55) CARM Centre. 2006b. "Collection and Services Policy Manual." "2.3 Criteria for Materials To be Accepted into the CARM Centre." 〈http://caval.edu.acu/carm/pst/cspm/Collection and Services Policy Manual.pdf〉 [cited 2006.11.20]

56) O'Connor, Steve. "Collaborative Strategies for Low-Use Research Materials," *Paper presented at the Preserving America's Printed Resources, the Role of Repositories, Depositories and Libraries ,of Record* (Chicago: Illinois, July 21, 2003). 〈http://www.crl.edu/content/steve_o.htm〉

57) CARM Centre. 2006b. 전게 사이트.

www.kci.go.kr

센터 소장자료의 5%정도는 1990년 이전 간행자료이고, 17%정도는 1950년 이전 간행자료이다.[58]

자료의 소유권: CARM 센터에 이관된 컨소시엄 컬렉션에 소장된 자료의 소유권은 가능하면, 센터로 양도하도록 한다. 컨소시엄에 양도된 소유권은 모든 회원도서관이 공동의 소유권과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59] 그러나 보존서고에 소장된 모든 자료의 소유권이 컨소시엄으로 반드시 양도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만약 도서관이 법, 혹은 기금이나 기증에 의해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 장기대출로 서고에 자료를 이관해 두는 것으로 하고, CARM 목록에 이 사실을 반영한다. 만약에 다른 도서관이 동일한 자료를 컨소시엄 컬렉션에 기증하기로 하면, 대여자는 해당 자료를 모체기관으로 가져가거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보존서고 요금률에 따라 자료용 공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60]

시설 및 자료의 이용과 서비스: CARM 센터에 소장된 단행본은 도서관과 기관들에 대출하지만, 정기간행물은 보통 시설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학술지 논문이나 단행본의 챕터 등을 복사물로 문헌제공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이 가능한 자료는 개인에게 직접 대출하지 않고, 회원도서관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2005년 통계에 따르면, 단행본은 765건, 정기간행물은 395건 신청되었으며, 이 가운데 34%는 원문파일전송 시스템인 ARIEL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공되었다. 이 같은 이용의 건수는 계속 증대되어 장서의 증가 및 호주의 연구커뮤니티에 대한 CARM 센터의 중요성 증대를 반영하고 있지만, 전체 장서 규모에 대비한 이용률은 0.004%에 그치고 있다.[61] 이 같은 이용률은 이들 자료를 각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보다 보존서고로 이관해 보관하는 것이 더 타당함을 입증한다.

CARM 센터는 시설 내에 정리시설, 열람실 및 보존실을 갖고 있다. 센터는 컨소시엄에 속한 도서관들을 위해 리포맷팅, 상호대차, 문헌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에서 수행되는 정리 서비스에는 비용이 부과되는데, 2004년 현재, 단행본의 정리는 한 종당 $3.15, 연속간행물의 정리는 미제본호는 $1.05, 제본본은 $2.85를 부과한다. 정리업무는 호주 국가서지 데이터베이스(NBD. Kinetica 시스템)와 CARM 센터 데이터베이스(Aleph 시스템)에서의 카피목록, 바코딩, 상자에 배치, 소장위치에 대한 서가배치 및 스캐닝, 즉, CARM Centre Tracking System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작업까지를 포함한다. 한편 오리지널 목록이 필요할 때에는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의 최소수준 서지레코드 작성에 정리비용에 추가하여 $11.55의 목록요금을 부과한다. 오리지널 목록의 경

58) CAVAL. 2006a. 전게 사이트.
59) Choate and Hayes. 전게논문.
60) CARM Centre. 2006a. "Collection and Services Policy Manual." "2.2 Ownership." 〈http://caval.edu.acu/carm/pst/cspm/Collection and Services Policy Manual.pdf〉 [cited 2006.11.20]
61) CAVAL. 2006a. 전게 사이트.

www.kci.go.kr

우는 호주 국가서지 데이터베이스(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 Kinetica 시스템)와 CARM 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할 서지레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62]

자료관리와 접근 시스템: CARM 센터의 컨소시엄 컬렉션에 대한 접근은 ALEPH Web OPAC을 통해 제공되고, Z39.50 프로토콜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다. 컬렉션의 대부분의 자료들은 호주의 국가서지 데이터베이스(NBD)에 기존의 서지레코드들이 회원도서관의 소장정보와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ARM에 기탁된 자료의 기계가독 레코드는 Aleph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되고, 가능한 한 NBD에도 업로드될 수도 있다. 회원도서관들은 또한 CARM 센터로 이관하는 자료에 대한 최소수준 서지레코드를 직접 Kinetica 시스템으로 업로드할 수도 있다. 모든 서지레코드는 표제 및 자료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수록하도록 한다. 또한 CAVAL의 종합목록인 COOLCAT을 통해서도 CARM 목록을 이용할 수 있다. COOLCAT은 아홉 개의 빅토리아주 대학도서관, 빅토리아주립도서관 및 CARM을 위해 단일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63] COOLCAT에서는 바로 CARM에 자료를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3. 스코틀랜드의 CASS

스코틀랜드 대학도서관 보존서고(Collaborative Academic Store for Scotland. 이하 CASS라 부름)는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Scotland. NLS)과 스코틀랜드 대학 및 연구도서관협회(Scottish Confederation of University and Research Libraries. SCURL), 그리고 여섯 개의 참여도서관(에딘버러대학, 글래스고우 칼레도니안대학, 페이즐리대학, 세인트앤드류대학, 스털링대학 및 로얄스카티시음악 및 연극아카데미(RSAMD))이 협력하여 5개 년 파일로트 프로젝트로 구축한 공동보존서고이다. 이 보존서고는 스코틀랜드의 대학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가치가 있으나 이용률이 낮은 연구 자료들을 협동소장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로 계획되었다.[64]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과 스코틀랜드 대학 및 연구도서관협회는 스코틀랜드 대학도서관들이 직면한 주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로서 공간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들이 주목한 공간 문제는 다른 여러 나라의 대학도서관들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서 도서관 장서에서 인쇄출판물의 지속적 증가, 입수가 제적을 초과, 도서관에서 요구가 높은 서비스에 우선순위 집중, IT 시설(기계 및 자원),

62) CARM Centre, "2004 Processing Price List for the Transfer of Materials to the CARM Centre Consortium Collection, Effective 1st January 2004-31st December 2004," 2004. 〈http://www.caval.edu.acu/carm/cspm/pricing/CARM Centre Processing Price List.pdf〉 [cited 2006.11.28]

63) CAVAL. 2006c. "COOLCAT." 〈http://www.caval.edu.au/svs/coolcat/〉 [cited 2006.11.28]

64) Nicholson, Catherine. "CASS: Collaborative Academic Store for Scotland Pilot."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pository Libraries, KUPIO-2, Kupio, Finland, 13-15 5, 2004. 〈http://www.nrl.fi/kuopio2/abstracts.htm Power Point Presentation〉 [cited 2006.06.06]

www.kci.go.kr

학습과 교수 공간, 사교 공간(social space)에 대한 요구와 같은 것들로 인해 발생하였다. 특히 물리적 공간에 대한 요구는 새로운 도서관 건물에 대한 재정투자의 감소, 지역별 보존서고의 구축 요구, 환경조건, 덜 이용되는 자료들의 중복, 비용 증대, 이런 유형의 자료에 대한 총체적 컬렉션 전략 부재로 가속화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도서관들은 2001년 11월- 2002년 4월까지 공동보존서고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목표는 스코틀랜드 대학도서관들에 소장된 "가치 있지만 이용률이 낮은(valuable but low use)" 자료를 공동으로 소장하고 제공하는 데 적절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02년 스코틀랜드 고등교육 재무위원회에서 재정지원을 얻지 못함으로써, 에딘버러시의 사이트힐(Sighthill)에 CASS와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의 도서관상호 서비스부(Inter-Library Services)의 공동시설로 구축하는 것으로서 계획을 수정하였다. 현재 CASS는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의 커즈웨이사이드 건물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도서관상호 서비스부 직원들이 관장하며, 2004년부터 시험운영 중에 있다.

물리적 시설: CASS는 12,000미터의 서가를 설치할 수 있고, 공간절약형 밀집서가(Ecospace compact mobile)로 자료를 저장하고, 문서저장을 위한 영국의 표준인 BS 5454:2000를 95% 준수하였으며, 화재감지 및 스프링클러 시스템, 경보기(Alarms)와 전일제(24x7) 경비원이 상주하는 보안을 갖춘 시설로 마련되어 있다. CASS의 운영 첫 해인 2004년 자료 이관 내용을 보면,[65] 흥미롭게도 전체 이관 권수가 아니라 각 도서관이 이관한 서가의 미터로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에딘버러대학이 1,077미터, 글래스고우 칼레도니아대학이 927미터, 페이즐리대학이 175미터, RSAMD가 43미터, 세인트앤드류대학이 1,014미터, 그리고 스털링대학이 213미터 분량의 자료를 각각 이관하여, 모두 3,449미터를 채우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수용 가능한 서가 길이는 5,649미터로, 따라서 2,200미터가 미사용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시설에 추가될 수 있는 서가의 길이는 모두 8,000미터에 달한다. CASS 참여도서관들은 자관의 컬렉션에서 이용빈도가 낮지만 가치있는 자료를 식별하여, 이들을 저장하기 위하여 NLS로부터 공간을 대여하고, 자료제공을 위해 CASS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다.

자료의 소유권: CASS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역시 자료의 공동소유권에 관한 것으로, SCURL 회원도서관들의 중복 제거, CASS 기탁자료의 선택적 허용 및 다른 기관 도서관 저장소와의 관계 등의 문제와 더불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CASS 보존자료는 "스코틀랜드 카피(The Scottish Copy)"라고 불리는데, 그 의미는 전자버전에 대한 백업본으로서 소장하

65) Dumpleton, Neil, "Partner Library Deposits in 2004." *The CASS: One year on Seminar, March 24th, 2005 Held at the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2005.
〈http://cass.nls.uk/oneyearon/OneYearOn_NeilDumbleton_files/frame.htm〉 [cited 2006.10.31]

www.kci.go.kr

는 단 한 카피의 인쇄본이라는 것이다. 이 카피는 CASS와 같은 공동보존서고에서 소장하지 않으면 망실될 수도 있는 자료이고, 이것을 스코틀랜드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카피(lending copy)로서 유지함으로써, 스코틀랜드의 학술계가 공유할 수 있는 장서로 여겨진다는 의미이다.[66]

자료 관리와 접근 시스템: 도서관은 Z39.50 혹은 인디버사(Endeavor Information Systems Inc.)의 Voyager-to-Voyager 기술을 사용하여 CASS 목록을 로컬 혹은 기타 목록과 통합할 수 있다. CASS는 Voyager 도서관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파트너 도서관이 동일한 Voyager 시스템을 사용하면, CASS 데이터베이스에 Voyager-to-Voyager 컨넥션이 가능하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Z39.50 컨넥션을 통하여 통합검색이 가능하다. 참여도서관들은 자료를 NLS에 있는 CASS 시설로 보내고, CASS 목록에 추가할 목록 레코드를 제공한다. 또한 CASS로 보낸 자료에 대한 새로운 소장정보를 추가하도록 자관의 목록을 갱신한다. 그리고 도서관은 자관의 이용자들을 위하여 CASS 목록에 로컬 링크를 수립할 수도 있고, 상호대차 부서에서 CASS 자료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CASS 직원이 요청을 처리하여 자료를 전자문헌제공이나 전통적 우편방식으로 제공하고,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이내에 대부분의 요청을 제공하도록 한다.

Ⅳ. 맺음말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여러 나라의 대학도서관들은 예산의 축소, 학생 수 증가와 구성의 변화에 따른 도서관 역할의 변화, 새로운 이용자층의 증대와 요구의 변화, 도서관 컬렉션 속성의 변화, 정보기술의 발전, 자료가격의 급등과 도서관 구매력 감소와 같은 문제점에 심각하게 직면해 오고 있다.[67] 이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형태의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들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동보존서고는 도서관 재정, 공간, 시설, 인적 자원이 제한되고, 컬렉션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변화해가는 상황에서 교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부"를 보존하고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자원 공유 및 비용 효과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66) Sinclair, Colin, 2005. "Empty Shelves? Advantages for CASS Partner Libraries." The CASS: One year on Seminar, March 24th, 2005 Held at the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http://cass. nls.uk/oneyearon/OneYearOn__ColinSinclair__files/frame.htm [cited 2006.10.31]

67) 곽동철, 김기태, 윤정옥,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와 문제점의 분석: 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7, No.1(2006), pp.3-28.

www.kci.go.kr

이 연구에서 상세히 살펴본 미국, 호주 및 스코틀랜드의 일곱 개의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들이 각각 운영주체, 참여기관의 규모와 구성, 소장자료의 성격, 재정의 지원과 비용 분담 등 측면에서 고유한 면모를 나타내고 있지만, 대체로 전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공동보존서고는 참여 대학들의 캠퍼스 외부지역에 창고형 고밀도의 목적용 저장시설로서 구축됨으로써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료를 위해 통제된 보존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대체로 보존대상 자료는 공동보존서고를 이용하는 도서관들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지만, 각 도서관의 재량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학술적 가치가 있으나 잘 이용되지 않는 인쇄자료가 주류이고, 정기간행물의 인쇄본 저장소로서의 기능이 중시된다.

셋째, 협력형인가 조합형인가에 따라 운영 및 재정부담의 방식이 다르지만, 대체로 참여기관의 공간이용도에 따라 권한 및 비용이 균등하게 할당된다.

넷째, 소장자료의 소유권은 보존서고의 운영형태에 따라 개별 도서관에 속하기도 하고, 참여기관 공동의 것이 되기도 하는데, 공동소유권의 인정 여부에는 주나 연방정부, ACRL 등과 같은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섯째, 보존서고의 수행 업무 및 제공 서비스는 모기관 혹은 참여기관의 목표와 성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크게 보존과 제한된 열람시설로서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와 상호대차 및 외부 대상 보존처리기술의 활용시설이라는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 공동보존서고들이 갖는 목표는 거의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교내 공간의 최적의 활용성 보장: 공동보존서고는 점점 더 다학문적으로 변화해 가는 학술환경에서 연구자와 학습자에게 자주 이용되는 자료를 교내의 주요 공간에서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가치가 있으나 이용이 적은 자료를 캠퍼스 외부공간에서 관리하고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대학도서관들이 협력하는 시설이다.

"마지막 한 부"의 보존: 공동보존서고는 대학도서관의 컬렉션에서 중요하지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연구가치가 있는 자료를 최소한 "마지막 한 부"라도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www.kci.go.kr

보존시설 및 운영 비즈니스 모델 정립: 공동보존서고에 별치되고, 공동으로 소유되는 컬렉션의 관리와 보존의 효율성, 자료의 활용도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협력방안을 참여도서관들이 함께 모색하고 추진하는 시설이다.

보존자료의 이용효율 보장: 공동보존서고 참여도서관들은 컬렉션의 보존과 더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료의 제공과 이용을 보장하도록 업무흐름과 서비스 모델을 발전시킨다. 캠퍼스 도서관 컬렉션의 접근성에 상응할 만큼 신속한 원문제공과 상호대차를 위해 디지털화 및 배달서비스를 확장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표와 특성을 갖는 여러 나라 공동보존서고의 시설 건축, 관리와 운영 상의 제반 특성들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에도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실제로 부지의 선정, 고밀도 저장시설을 위한 목적용 건물의 신축, 시설·장비의 구입과 유지관리, 참여기관과 운영주체의 성격, 비용의 분담, 자료소유권, 자료관리와 접근 시스템의 구축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처한 고유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들을 위하여 공동보존서고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어디에 어떤 형태의 시설을 세울 것인가?
둘째, 어떤 규모와 성격의 대학들이 참여하며, 몇 개의 대학이 참여할 것인가?
셋째, 운영과 재정지원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넷째, 보존대상 자료의 규모와 성격, 자료의 소유권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다섯째, 보존서고가 수행하는 업무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자의 범주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여섯째, 자료 관리와 이용을 위한 접근 시스템은 어떤 형태로 구축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 연구에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공동보존서고의 해외 사례를 포괄적으로 서술 및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기초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분석에 기반하여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구축하는 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www.kci.go.kr